

천사야 오늘도 고마워요

호시노 아야꼬(장성교회)

1. 그 이후의 다말

잊지 못할 1996년 10월 25일. “다음 달부터 가정출발 하도록” 목사님이 말하셨습니다. 한국생활 3개월. 내 마음은 임지 기간이 아직 한 달 있다는 안도감과 나머지 한 달로 무엇이 변할 것인가, 긴박감으로 가득했습니다. 그런 나에게 가정출발을 한 달 앞당기라고 하신 것이다.

일본 가족의 반대가 아무리 심해도 한국에 가서 주체와 함께 뜻을 간다고 믿고 있던 나에게 이 나라는 꿈과 희망의 땅 가나안이었다. 설마 참부모님께서 주신 주체가 참부모님을 믿지 않는다는 것은 상상도 못했다. 약속의 땅으로 돌아간 이스라엘민족을 맞이한 것은 흐르는 젓과 꿀이 아니라 가나안 7족과의 싸움이다. 얼마나 실망했는지 나는 그 심정을 체휼했고 일본 광야노정 보다 훨씬 절망적이었다.

처음으로 이 나라를 방문했을 때 나는 우연히 참부모님을 만날 수 있었다. 3만쌍 축복을 앞두고 아버님이 직접 일반 사람들에게 말씀을 주시게 하기 위해 세계일보에 오신다고 들었다. 전날 숙소에 있던 우리는 환희와 감사로 기도드리고 다음날 주차장에서 기다렸다. 느닷없이 많은 일본식구 무리를 보시고 당황스러운 아버님과 자비로운 눈빛을 주신 어머니. 이분을 만나기 위해 살아왔다고 기쁨의 눈물을 흘리면서 이날을 영원히 기억하자고 다짐한 그날이 10월 25일이었다. 참으로 하나님은 멋지고 엄하신 분이시다.

가정출발이란 먹이가 없어지면 주체는 헌금은 물론 기도도 예배 참석도 하지 않을 것이다. 이런 사람이 주체라니... 나는 목사님 앞에서 영영 울었다. 가정출발은 하나님의 기쁨이니 울면 안 된다고 목사님은 하셨지만 눈앞이 캄캄했다. 16살의 어머니의 위대함을 새삼 알았다. 이런 심정으로 가정출발은 할 수 없는데 아버지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구원의 말씀은 “다말에 대해 연구하면 원리 전체를 알 수 있다. 하나님이 원하는 혈통을 어떻게 남길 것인가, 사랑할 것인가 하는 문제이다.”(뜻과 세계 일본어판 p75)라는 것이었다.

이 말씀을 처음 읽었을 때부터 수수께끼였다. 그 수수께끼가 나를 이끌어 준 것이다. 다말도 다말이지만 유다는 도대체 어떤 사람인가? 어떤 사람이나면 간음하면 사형선고 받을 시대에 창녀와 타락한 사람이다. 게다가 자신을 증거 할 물건까지 쥐 버린다. 믿음은커녕 상식도 없는 사람 같지만 하나님은 사랑하셨다. 혈통이라는 이유 하나로.

“아, 이제 알았어. 성주 먹고 혈통전환 하면 남자는 나머지는 아무래도 좋은 거야. 하나님의 소원은 2세니까. 뿐만 아니라 한국 남자는 하늘의 선민이잖아. 그래! 가정출발 하는 거야!” 나는 깨달음이라기보다는 자포자기 같은 순발력으로 가정출발 했다. 출발의 심정이 그런 탓인지, 남편 복귀가 전혀 되지 않는 것이 한심하다. 다말은 베레스와 세라를 낳았는데 유다는 어떻게 되었는가? 돌 맞아 죽었다는 이야기는 없지만 다 같이 사이 좋게 살았다고도 쓰여 있지 않다. 다말 연구생활은 계속된다.

2. 여름의 숙제

개인노정과 가정생활의 큰 차이는 신앙으로 가족이 하나가 되지 않으면 생활에 장애물이 생긴다는 거다. 일요일마다 교회에 나간다는 이유 하나로 아침부터 혼나고 눈물을 흘리는 일이 계속되면 목요일쯤부터 주체와 싸우지 않도록, 시어머니가 기분 나쁘게 되지 않도록 신경을 쓴다.

눈치 보면서 겨우 교회에 가면 주위는 가족 동반. 왜 주체랑 오지 않았냐는 목사님의 말씀에 기가 죽어 집에 가면 점심 늦었다고 야단이다. 나갈 때는 잘 갔다 오라고 보내준 주체도 시어머니와의 수수작용으로 마음이 변해 버린 거다. 나에게도 도망 갈 데가 없었다. 눈앞의 가족이 나를 비판하는 괴로움. 가정에서 체휼한 심정은 상상도 못할 만큼 아프고 지독하다. 하나님이 부모이면 왜 이런 자리에 자식을 보낼 수 있는지... 말없이 혼자 요리하는 부엌에 도마 위로 떨어지는 눈물을 봤을 때 하나의 깨달음을 얻었다.

일제시대 많은 한민족이 일본으로 끌려갔다. 이런 일본의 죄를 청산하고 하늘의 한을 풀기 위해서는 반대로 아버님을 위해 한국에 온 일본 무리가 필요 하지는 않을까. 일본으로 끌려간 한민족은 고통 속에 살다가 돌아가셨지만 우리는 감사함 속에 살아남아야 되는 거다.

36만쌍 축복을 앞둔 시절. 6500가정 언니가 ‘아버님은 매칭하실 때 소원 하나를 들어준다’고 했다. 그 말을 듣고 나는 도대체 어떤 기도를 하면 잘 되는가를 생각하고 생각했다. 실은 신앙은 있지만 부부관계가 어려운 가정을 많이 봐서 불안도 컸다. 어떤 주체를 만나면 기쁨과 감사로 살아갈 수가 있을까.

“여자가 남자보다 키 크면 불쌍하니까 잘 맞춰 주시라고 어머니가 아버님께 말씀해줘서 키 걱정 안 해도 돼.” 언니 말로 우선 키는 제외. 일본어 밖에 못하는 내가 외국으로 시집가면 어학 능력은 어린이 수준 이하니까 상대방 학력도 상관없다. 나이 차이가 많은 것도 같듯이 남자도 혈통을 남기기 위해서는 젊은 아내가 필요하니까 이것도 감수해야 되겠다. 그러면 나는 무엇을 부탁할까? 나의 희망은 이것이다. 하나님 참부모님과 주체와 내가 영원이 같이 있을 수 있도록.

드디어 1995년 여름은 왔다. 밤낮을 가리지 않는 아버님의 매칭. 직접 옆에서 도와드렸다는 777가정의 부인이 그 상황을 보고해주셨다. “아버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외모나 학력이 아니라 영원을 선택하는 여자가 착한 여자. 최고의 사람을 찾아줬으니 120% 감사하라!” 영원이라는 말씀에 아버님이 내 기도를 듣고 계신다고 얼마나 감동했는지...

외로움을 견디지 못해 눈물을 흘리면서도 마음 한구석에 ‘이상하다. 이런 것이 아닌데...’라는 의문과 ‘설마 이것이 영원은 아니겠지?’라는 일말의 불안. 무엇보다 “120% 감사 안 해서 그래!”라는 아버님의 목소리가 다시 일어나는 것이었다.

3. 달빛 성전

여수 해양수련. 한국에 사는 일본 여성들이 큰딸로서 교육과 사랑을 받은 40일. 바다로 훈련만 할 것이다 했더니 놀랍게도 부부생활에 관한 말씀이 대부분이었다.

“건강한 남성은 하루에 몇 번도 성적인 욕구가 생깁니다. 저녁 집에 온 남편을 아들처럼 맞아 밤엔 친구, 잠자리에서는 애인처럼 하세요.”

사랑의 주체는 항상 사랑하고 싶은 충동이 생기는 것 같다. 그 욕망을 만족시킬 수 있는 사람이 바로 나라는 것이다.

1박2일 청평수련조차 반대하는 주체를 설득해 여수에 갈 결심을 한 것은 참부모님께 보고하고 싶었기 때문이다. 하나님도 참부모님도 믿지 않는 주체. 축복을 파탄할 수 없어 가정출발은 했지만 자유롭지 못한 신앙생활에 하늘을 원망한 때가 한두 번이 아니었다. 그래도 지금은 잘 산다고 참부모님을 안심시켜 드리고 과거를 회개하고 싶었다.

이전의 나에게 부부생활은 예배 예약이었다. 성일 아침에 주체가 기분이 좋아야 교회에 갈 수 있기 때문에 부부생활은 제일 효과적인 수단이었다. 그러나 부부생활의 기쁨을 아는 주체와 의무감으로 임하는 나라면 하나님을 기쁘게 해 준 사람은 주체이지 내가 아니다.

부부생활에 적극적으로 대하는 것조차 모험이었지만 나도 하나님과 함께 기뻐하고 싶다는 마음으로 구체적으로 대화를 나누어 서로를 이해했다. 우선 남편의 소원을 이루어주고 그 조건으로 나의 희망을 전하기로 했다. 가정출발부터 7년 천지부모 천일국 개문 축복성혼식(03.02.06)으로부터 극적으로 변화가 왔다.

아버님은 여자는 남자의 5배 시간이 걸린다고 알려주셨다. 주체가 자신만을 생각하면 나는 만족하지 못하고 나의 기쁨에는 주체의 정성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주체가 5배 투입하고 싶은 아내가 되는 것이 나의 정성이다. 부부가 하나 될 때, 하나님이 내려와 함께 기뻐하신다는 그 기쁨을 주체가 주었던 순간은 진심으로 이 사람 없이는 살 수 없다고 느꼈다.

“기쁘게 살아요. 기쁘게 사는 곳에 하나님이 역사하신다. 하나님과 함께 영원히 가자.”

여수에서 받은 말씀을 가슴에 안고 주체가 기다리는 집으로 돌아갔다.

4. 하늘집 우리집

“통일교는 밝게 하죠?”

장례식장 아저씨는 잘 아시고 우리 어머니의 영정사진 액자는 갈색, 리본은 흰색으로 해 주셨다. 흰 단발머리는 우아한 검정머리가 되어 화려한 한복 모습의 우리 어머니. 살아계실 때 이렇게 해 드렸어야 하는데 생일 선물도 받지 못한 채 생신 아침에 쓰러져 하늘에 가서 버린 것이다.

차가웠지만 부드럽고 작은 어머니 손. 그 손으로 얼마나 일을 하셨는지. 여름이 오면 손톱에 봉숭아물을 들어주려고 했는데 여름은 지나가고 이제 두 번 다시 그런 날이 없다. 며느리로서 어려움도 많이 겪었는데 긴 세월을 뒤돌아보면 우리에게 남은 것은 사랑과 봉사의 삶이다.

독자인 주체는 홀로 불안했던가 목사님께 성화식을 부탁하자고 한 내 말을 곧 받아주고 목사님의 기도로 보낼 수가 있었다. 해 드리고 싶었지만 못해드린 것이 많았는데 그것이 슬퍼서 눈물이 넘쳤다.

조용한 장례식장에서 청평에 건 전화.

“이제 해원하셨으면 자동으로 그 영계에 갈 수 있으니깐요 걱정 않으셔도 돼요.”

부드러운 목소리가 마음을 평온하게 해 줬다. 하나님께서 계시고 영계가 있고 그 모든 것이 참부모님을 통하여 하나가 된다는 사실이 무엇보다 큰 은혜다. 효정원에 대한 말씀은 들어도 필요성을 느끼지 못했다. 조상해원이 먼저라는 생각이었다. 그런데 몇 번 더 그런 기회가 있어 점점 마음이 흔들렸다. 주말에도 직장에 나가야 해서 청평에 갈 때가 오면 한꺼번에 해원하자고 준비한 돈이 있었기 때문이다.

목사님께 물어봤더니 해원도 효정원도 조상님 위해서 하는 것인데 혜택이 없을 리가 없다고 하셨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하신 말씀이 “믿고 하면 역사가 생길 거야. 믿고 해봐. 참어머님이 원하실 때 하는 것이 제일 좋아!”

나는 결심했다. 청평의 은혜가 전남으로 내려온다. 효정원이 교구에서 전수되는 그날을 기다리면서 생각난 장면이 있었다. 장례식장에서 20년 만에 만난 이모. 우리가 가정출발할 때 한번 집에 오셨는데 그때뿐이었다. 다른 이모랑 싸워 큰언니이신 우리 어머니조차 만나지 않았던 것이다. 작년에 오랫동안 미안했다고 혼자 찾아오셨는데 우리는 이제 분가하고 어머니만 계셨다. 이제 남의 집이 된 작은 시댁. 오래된 집에 홀로 사신 어머니를 보고 이모도 많은 것을 느끼셨을 거다. 그 이모가 장례식에서 내 손을 잡고 말하셨다.

“언니가 걱정하지 말라고 며느리가 잘 해 준다고 했어. ‘어머니 조금만 더 기다려주세요. 새로 집을 사면 다시 어머니 모시고 사니까 조금만이요.’ 그렇게 한다고.”

싱글벙글 웃으신 이모 앞에 할 말이 없었다. 나는 한 번도 그런 말을 해본 적이 없으니까. 집보다 먼저 아들 셋을 가르쳐야 된다는 생각이었다. 그 사정을 아신 어머니는 우리에게는 말도 못했던 꿈을 이모에게 말하신 것이다.

양손으로 효정원을 받고 이제야 어머니가 새로운 그것도 집이 아니고 성전으로 사신다는 것이 기뻐다. 효정원을 통해 내가 은혜와 용서를 받은 것이다. 하필 그날은 주체 생일. 나는 집에 가서 상 위에 효정원을 털썩 두고 말했다.

“아빠 봐봐! 나 당첨됐어! 조상님 집이 당첨됐다니까! 어머니 이제 여기서 사시는 거야. 아빠 생일선물 받았네.”

은혜는 언제나 하늘에서 온다.